

# 화순 도원마을 '자연품은 무릉도원' 탈바꿈

작년 무등산 평촌마을 이어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  
복숭아 단지·생태 관광지 조성·마을 홈페이지 개설

무등산 국립공원 남동쪽 자락에 위치한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품마을 사업 대상마을로 무등산 도원마을을 선정했다. 무등산 자락에서 명품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지난해 광주시 북구 평촌마을에 이어 두번째이다.

◇장봉재 넘어 광주가는 길목 위치 = 도원마을이 형성된 때는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 유배를 온 남씨와 문씨가 "여기가 마치 무릉도원(武陵桃源) 같다"며 모여 살게 됐다고 전해온다.

마을 명칭은 노루의 배와 형태가 비슷하다 해서 '장복동(鐘伏洞), 또는 규봉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동구촌'으로 불렸다. 장복동 마을은 위에서부터 상장봉·중장봉·하장봉 등 3개 마을로 구분됐다.

옛날에는 이곳을 거쳐 장봉재를 넘어야만 광주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마을에 많은 주막과 쉬터가 형성됐고 주민도 100가구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등산에 숨어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파난하게 하는 소개(疏擧) 작전에 따라 마을이 황폐화했다. 이후 상장봉 대신 중장봉 마을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곳을 도원마을이라 하게 됐다. 현재 마을인구는 15세대 27명.

마을 토지는 논이 53.1%를 차지하고 산림 11.9%, 하천 9.3%, 밭 7.4%, 목장용지 3.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야와 삼으로 만든 다랭이 논이 특징이다.

◇주민&탐방객이 행복한 마을 =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올해 마을환경 개선사

업과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해 도원마을을 '무등산 국립공원의 대표마을' 및 '주민과 탐방객이 행복한 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무릉도원(복숭아꽃이 피는 마을) 이미지 구축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무등산 국립공원 동쪽 관문 역할을 위한 기반구축에 나선다.

우선 탐방객이 마을에 1박2일간 묵으며



논갈이 들녘에 몰려든 황로떼

체험할 수 있도록 캠핑장 바비큐 파티와 복숭아 따기 체험, 소담구지 타고 꽃담길 걷기 등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화 한다. 마을에는 복숭아 길과 복숭아 단지를 조성해 복숭아꽃 축제를 열어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 마을 경관을 위해 개인정원 개념으로 마을 안길에 꽃담 길도 조성할 계획이다.

축제 및 프로그램도 ▲연중(봄~여름 복숭아 축제·가을 구절초 축제) ▲1박2일 체험(무릉도원의 1박2일) ▲상시행사(5도 2차=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시간 보내기)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밖에도 마을 이야기와 프로그램을 담

은 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외 홍보를 위한 팸 투어를 실시하게 된다.

박용규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탐방객들도 국립공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명품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된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은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5곳(광주 북구 평촌마을, 진도 관매도, 신안 영산도, 여수 안도 동고지마을, 화순 도원마을)이 선정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여름철새인 황로떼가 담양군 봉산면 친환경 쌀생산단지에서 모내기를 위해 씨레질을 하는 트랙터 주변에 몰려들어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황로는 강가나 저수지 등의 습지에서 생활하며 곤충이나 지렁이, 어류 등을 주로 잡아먹는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담양군, 中 희귀 대나무 수입 연구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생육·활용 방안 등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둔 담양군이 대나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희귀 대나무(사진)를 들여왔다.

담양군은 "중국에서 보유종인 희귀 대나무 묘목 66종과 씨앗 9종 등을 수입해 한국 대나무박물관내 품종원에 식재하고 적응력 및 특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중국의 승명, 곤명, 부민 등지에서 희귀 대나무에 대한 생육 특징 등을 파악한 후 수입절차와 검역 등을 협의했다. 이어 담양군 산림조합에서 대나무 수입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군은 14일까지 1차로 들여온 대나무 묘목 44종을 한국 대나무박물관내 품종원에 옮겨심고, 다음달까지 묘목 22종과 씨앗 9종을 2차로 수입해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새로 들여온 다양한 희귀 대나무들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적응시험을 통해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탐구



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나무 수입을 통해 더욱 다양한 대나무를 확보함으로써 대나무의 새로운 효과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연구를 통해 적응시험을 거친 후에는 군민들이 희귀 대나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내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장성군, 권역별 한방진료실 4곳 운영

장성군이 주변에 한의원이 없어 한방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방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장성군은 "삼서 보건지소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방 진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군은 삼서 보건지소를 비롯해 기존에 설치된 보건소와 북하 보건지소, 울 하반기

에 준공예정인 남면 보건지소까지 총 4개소에 한방 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진료를 통한 예방과 치료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보건소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18개소의 보건기관을 이전 또는 신축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36㎡ 규모로 남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장성군, 200억 들여 황룡강 복원사업

장성 황룡강이 청정 하천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장성군은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120억·군비 80억원)을 투입해 각종 개발공사로 훼손된 황룡강을 본래의 쾌적한 자연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장성을 용강리(장성댐 하류)부터 광주 경계인 황룡면 옥정리(장진보)까지 총 9.5km 구간이다.

군은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전남 지방건설기술 심의와 생

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다음달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황룡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은 물론 수생물 식재와 어류 서식지 조성으로 하천 생태환경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황룡강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시설 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무등산 동부지역 산행도 버스타고 가세요

주말·공휴일 탐방버스 운행

주말과 공휴일에 무등산 동부지역 산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박용규)에 따르면 기존 '무등산 순환버스'에 이어 지난 3일부터 '무등산 탐방 지원버스' (이하 탐방 지원버스)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며 증심사와 원효사 지역에 집중된 탐방객을 안양산·만

연산 등 무등산 동부지역으로 분산하고,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화순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큰재~중지마을~들국화마을(수만리)~안양산휴양림~이서분교(도원마을)를 거치며, 1일 12회(40분~1시간 간격) 운영한다. 최근 도원마을에서 출발해 도원계곡을 거쳐 장봉재로 오르는 코스(3.1km·1시간 소요)를 찾는 탐방객이 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무등산 도원마을과 탐방지원버스 노선도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림>의 이효용 대표